평등 일구는 사람들

"부처님 승단은 성소수자에도 열려 있었죠"



효록 스님
성소수자불자모임 지도법사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효록 스님은 심리상담 전문가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슈퍼바이저, 한국불교상담학회 수퍼바이저 및 이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굵직굵직한 직함도 갖고 있는 자타공인 전문가다. 그러나 정작 상담가보다는 성소수자불자모임의 지도법사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효록 스님은 "사실 성소수자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불교공부를 하던 중 인연이 닿아 지도법사로 활동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많은 스님들이 여러 분야의 모임에서 지도법사 소임을 맡아 법문하고 소통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여러 언론에서 스님을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단순한 지도법사의 역할을 넘어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근원으로 들어가 성소수자 문제에 무지했던 불교계에 화두를 던진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2016년 효록 스님이 발표한 '불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한국불교(불교사회연구소)' 는 성소수자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 본 유의미한 기초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성소수자들과 직접 만나 실질적인 고통과 상황을 심층조사했고, 우리사회와 종교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들이 불교에 거는 기대와 역할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효록 스님이 불교계 성소수자 분야의 상징적인 인물로 인식된 이유는 오랜세월 동안 성소수자에게 무관심했고 또 무지했던 불교계에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를 던졌기 때문이다.

스님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불교계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퀴어축제' 에 부스를 마련하고 무지개 연꽃 부채와 오색실을 나눠주는가 하면 성소수자 부모를 초청해 법회도 열었다. 단발성이란 아쉬움은 있지만, 이 같은 변화는 점차 무르익어 '차별금지법 제정' 과 관련한 대사회적 현안에서 조계종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스님이 2015년부터 인연을 맺어 온 성소수자불자모임의 명칭은 '불반' 이다. 불반은 '불교이반' 의 줄임말로,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일반' 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아 '이반' 이라고 칭하는 데서 비롯됐다.

"'이반' 이라는 표현이 참 아프죠. 사실 저 역시도 이들의 고통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이해하고 공감할 뿐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모른다는 것이죠. 다만 성소수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치유해 주고 싶은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나요?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을 뿐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한 인간일 뿐이니까요."

성소수자 실질적 고통드러낸
논문 발표해 '종교 역할' 주목
제도적 차별도 편견서 비롯해
부처님안목·가르침 되새겨야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스님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스님은 "생목숨이 사회적 편견에 의해 앗아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의 죽음에 이어 벌어진 참사였다는 점에서 더 그랬다.

효록 스님은 "부처님 당시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확신의 이유는 율장이다. 율장은 부처님 재세시부터 필요에 따라 제정돼 온 불교 교단의 계율을 집대성한 문헌으로, 스님은 최근 초기불교 율장 속 성소수자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분석해 '팔리어 율장에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수행생활' 논문을 발표했다.

스님에 따르면 율장 속 성(sex)과 관련한 대목은 2000여 건 가량이다. 이 중 540건 가량이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미 부처님 재세시에 승단 내에 성소수자가 있었음을 드러낸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남자의 몸으로 출가해 비구승단에 있던 한 수행자가 여자로 됐다는 얘기를 부처님께 고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냐. 그렇다면 비구니 승단으로 가서 비구니 은사를 모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라.' 故 변희수 하사가 오늘날 군대가 아니라 부처님 당시 승단에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일인 셈이죠."

효록 스님은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에 그 다양성 속에서 모두가 평등함을 아시고 가르침을 주셨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처님의 안목을 이제야 확인하고 나니 범부인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부처님 제자인 우리 불교계라도 앞장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무관심 혹은 편견에 사로잡힌 분들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며 "율장을 통해 부처님이 성소수자를 얼마나 평등한 시각으로 바라보셨는지를 안다면 금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소수자 문제에 불교계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스님은 "스님들과 불자들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음을 알고 이를 우리사회에 알려나가는 노력이 좀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은 편견과 혐오를 만들어내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가 되새기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어·모습 달라도 존귀함은 같죠"

평등 일구는 사람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일하던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산업현장에서 일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같은 공장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일은 이주노동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외모가 다르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존귀함까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장 담마끼띠 스님(아산 마하위하라 주지)은 재한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편견과 차별이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로 이 같은 스님의 우려는 통계로도 증명된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은 한국인의 6배, 산재로 인한 사망은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질병과 부상까지 합하면 이주노동자 산재사고는 매해 7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근무나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지난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추위로 사망한 캄보디아 故 속행 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496곳의 주거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70% 상당이 사업주가 제공한 비닐하우스나 조립식패널,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었다.

담마끼띠 스님은 "아프거나 다친 스리랑카 사람이 있으면 통역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은 경우도 겪어봤다"며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이주민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 출신인 담마끼띠 스님은 외국인인 동시에 한국인이다. 2016년 한국국적을 취득해 귀화했기 때문이다. 2007년 대승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온 스님은 이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를, 동국대학교에서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에서 거주한 세월만 10년이 훌쩍 넘고 한글·한국어 실력도 수준급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스님은 이주민을 향한 편견과 차별에 직면하곤 한다.

2019년 마하위하라 사원 건립불사 당시 이로 인해 고충도 겪었다. 평택 마하위하라 사원을 아산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부지를 매입해 스리랑카 전통방식의 사원을 건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친 것.

아산시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반대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고 주민들이 요구한 모든 조건을 수용했음에도 개원법회를 하는 순간까지 불편한 시선은 이어졌다. 당시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조건은 △신도들이 목적 없이 마을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한다 등이었다. 명백히 이주민을 향한 편견에서 비롯된 조건들이다.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
산업재해 사망비율도 높아
한국국적 취득한 이후에도
사원건립시엔 편견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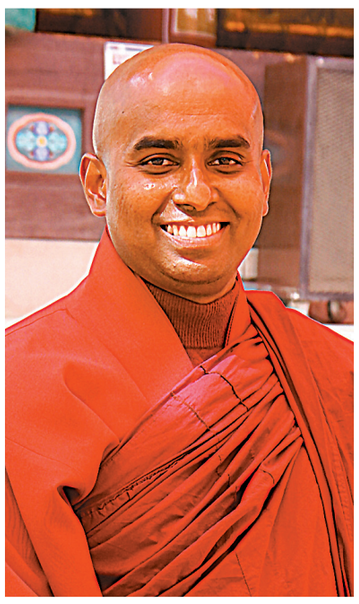
그토록 강경했지만, 정작 마을 주민들의 편견이 사라지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큰 행사를 열지 못하게 행사 인원수도 제한하고 신도들이 마을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달라는 분들이셨는데, 이제는 사원에도 찾아오시고 마을에서 만나면 인사도 잘 받아주세요. 마하위하라 사원은 애초부터 스리랑카 불자들과 한국 불자들 모두를 위한 공간인 동시에 지역사회와도 함께하는 사찰로 운영해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 반대에 부딪혔을 때는 정말 막막했죠.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서로를 알고 이해해 가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마끼띠 스님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이해' 와 '소통' 을 꼽는 이유다. 스님은 "어찌보면 대부분의 편견들은 낯설음 혹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부를 위해 한국에 온 스님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스리랑카 사원까지 건립하게 된 연유도 어찌보면 이주민을 향한 한국사회의 편견에서 출발했다. 어느 지역에 있든 스님을 중심으로 스리랑카 불자들이 모여 법회를 보면서 자연스레 모임이 만들어졌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 스님은 개개인을 위한 도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국사회에 스리랑카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계기를 만든다면 편견 역시 서서히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확신으로 변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스님은 '사단법인 마하위하라' 를 출범했다. 마하위하라 사원을 토대로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 불자들의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이사장인 스님을 제외한 이사진은 모두 한국인이다. 담마끼띠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동등하다는 가르침을 남기셨고 실천하신 분"이라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편견과 차별로 상처받을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마끼띠 스님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장

